

부 록 1.

원개형동기의 앞뒷면

- 그 사용법에 관하여 -

시미즈 야스지
(나라현립 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

번역 : 한 나 래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I. 머리말

II. 자료조사

1. 대전 괴정동유적 출토 원개형동기
2. 예산 동서리유적 출토 원개형동기
3. 부여 합송리유적 출토 원개형동기

III. 고찰

IV. 맺음말

일문 요약

円蓋形銅器は「鏡形飾」「鏡形器」「単鈕無文鏡」などとされることもある。ただし、同時代の多鈕鏡と異なる点は、円蓋形銅器には文様が見られない点、鈕が一つである点、多鈕鏡のように緩やかな凹面ではなく、曲率が大きい凹面という点である。はたして韓半島から出土する円蓋形銅器には光反射機能があるのだろうか。このことは円蓋形銅器の凹面を観察すれば、簡単に判断できるだろうと思い、国立中央博物館の槐亭洞遺跡出土円蓋形銅器および国立扶餘博物館の東西里遺跡、合松里遺跡出土円蓋形銅器の観察をした。

3点の円蓋形銅器を観察してわかった重要な事柄は以下に述べる通りである。

①槐亭洞遺跡、東西里遺跡出土円蓋形銅器の凹面側は丁寧に研磨されており、銅鏡の鏡面と同様の状況である。

②合松里遺跡出土円蓋形銅器の凹面側は研磨がなされておらず、鏡面のような状況になっていない。

③円蓋形銅器の凸面側は丁寧な研磨が見られない。槐亭洞、東西里出土品は、銅鏡の鏡面のように仕上げられていない。合松里出土品は粗研ぎも行われず、鋳肌の状態である。ただし、合松里出土品の鋳張りは除去されており未製品とは考えにくい。

槐亭洞遺跡、東西里遺跡の円蓋形銅器は光反射機能と音響機能を備えていた段階のものと考えられる。それに反して合松里出土品に関しては、前二者が持っていた光反射機能を喪失した段階のものであろう。凹面側の鏡面にある光反射機能と青銅器を打ち鳴らして音を出す音響機能の二つのうち、音響機能のみ選択された結果である。韓半島やシベリアの巫俗では、鏡を打ち鳴らして祭事を行う例がある。円蓋形銅器の二つの機能のうち、光反射機能については多鈕鏡の役割が増大し、音響機能については円形有文銅器から八珠鈴に引き継がれたと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に考えると東アジア古代の鏡の使用法について、再考すべきである。鏡の本質的な機能は光反射機能には違いないが、それ以外にも主体的な機能を保有していた可能性をもっと考慮する必要がある。

키워드 : 円蓋形銅器・単鈕鏡・有文円形銅器・八珠鈴・シャーマニズム・鏡

I. 머리말

물건을 보면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을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국립 부여박물관의 청동기에 관한 전시를 보았을 때, 나도 보이는 표면 외에 이면의 모습을 알고 싶어졌다. 수많은 청동기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것은 원개형동기라는 청동기이다. 박물관에서는 다뉴경의 전시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뉴(鈕, 꼭지)가 있는 면이 전시되어, 그 반대면을 관찰할 수 없었다.

거울을 연구하다 보면, 원개형동기 같은 원형의 물체를 보고 거울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사실 원개형동기는 정가와자(鄭家窪子) 6512호묘¹⁾ 출토 경형식(鏡形飾) 등과 관련되어 「경형식(鏡形飾)」 「경형기(鏡形器)」 「단뉴무문경(單鈕無文鏡)」 등으로 생각되기도 한다.²⁾ 다만 동시대의 다뉴경과 다른 점은 원개형동기에는 문양이 보이지 않는 점, 뉴(鈕)가 하나인 점, 다뉴경처럼 완만한 요면(凹面)이 아닌, 곡률(曲率, 곡선이나 곡면의 굽은 정도를 나타내는 수)이 큰 요면이라는 점이다. 과연 한반도에서 출토된 원개형동기에는 빛을 반사하는 기능이 있을까. 이 점은 원개형동기의 요면을 관찰하면 간단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괴정동유적 출토 원개형동기³⁾ 및 국립부여박물관의 동서리유적,⁴⁾ 합송리유적 출토 원개형동기⁵⁾를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자료조사의 결과에서 얻은 지식과 관련 있는 청동기를 참조하여, 한반도의 청동기문화에서 원개형동기의 성격과 사용방법을 추정하고, 문제를 제의하고자 한다.

- 1) 瀋陽故宮博物館·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75, 「瀋陽鄭家窪子的岡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學報』1期, 科學出版社, pp.141~156.
- 2) 吳江原, 2004, 「円蓋形銅器」, 『韓國考古學專門事典 青銅器時代篇』, 國立文化財研究所, pp.434~435.
甲元真之는 아래 논문에서 괴정동 출토 원개형동기를 십이대영자 출토 다뉴경과 함께 「대형경(大型鏡)」이라 한다.
甲元真之, 1990, 「多鈕鏡の再檢討」, 『古文化談叢』第22集, 九州古代文化研究会, p.42.
- 3) 李殷昌, 1979, 「大田市 槐亭洞出土一括遺物調査略報」, 『考古美術 第一号~第百号合輯』下卷 韓國美術史学会, pp.330~333.
李殷昌, 「大田市 槐亭洞青銅器文化의 研究 -石器·黑陶·青銅器·裝身具의 結合文化를 中心으로-」, 『垂細亜研究』第11卷 2卷, 高麗大學校 亜細亞問題研究所, pp.75~95.
- 4) 池健吉, 1978, 「礼山 東西里石棺墓出土青銅一括遺物」, 『百濟研究』第9輯, pp.151~181.
- 5) 李健茂, 1990, 「扶餘 合松里遺跡出土一括遺物」, 『考古學誌』第2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pp.23~67.

II. 자료조사

1. 대전 괴정동유적 출토 원개형동기<사진 1·2>

대전광역시 괴정동의 낮은 구릉에 있던 석곽묘(石槨墓)에서 출토된 유물군이다. 원개형동기(圓蓋形銅器)외에 다뉴조문경(多鈕粗文鏡) 2점, 동검(銅劍) 1점, 방패형동기(防牌形銅器) 1점, 동탁(銅鐸) 2점, 검과형동기(劍把形銅器) 3점, 곡옥(曲玉), 관옥(管玉), 소옥(小玉), 석촉(石鏃) 외에 흑도장경호(黑陶長頸壺),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가 출토되었다.

직경 20.6cm이며, 凹面(鈕가 없는 面), 凸面(鈕가 있는 面, 이하 같음)이 대부분 녹청(綠靑)으로 덮여 있다. 녹이 슬지 않은 부분의 색조를 보면 주석의 비율이 높은 고석청동(高錫靑銅)⁶⁾일 가능성이 높다. 鈕(꼭지)가 있는 면을 윗면(이하 같음)이라 하면, 오른쪽 아래부분의 외연(外緣)부터 鈕(鈕)에서 다소 떨어진 오른쪽 아래까지 심한 균열이 있다.

녹청으로 덮이지 않은 부분을 관찰하면 凹面측은 세심하게 연마(研磨)되어, 거울면(鏡面)처럼 완성되었다. 또 테두리의 평단면도 동일하게 완성되었고, 요면측(凹面側) 연단부(緣端部)의 각도 둥글게 되어 있다. 이것에 비해 凸面은 곰보자국처럼 거친 기면(器面)이 남아있어, 주기(鑄肌)⁷⁾에 가까운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凸面측(凸面側)의 연단부(緣端部)도 요면측(凹面側) 단부(端部)와는 다르게 둥글게 완성되지 않았다.

상세한 성분분석을 거치기 전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만약 고석청동(高錫靑銅)이라고 한다면 심한 균열임에도 균열이 중도에 끊어진 것은 청동기제작에 열처리기술(熱處理技術)을 이용, 고석청동기(高錫靑銅器)를 부드럽게 만들어 부숴지기 힘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⁸⁾ 동서리유적(東西里遺蹟) 출토 원개형동기와는 동범(同銅)으로 추정된다.⁹⁾

6) 高錫靑銅이라는 것은 대개 錫比率이 전체의 20%를 넘는 청동이다. 주석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백색에 가깝게 되고 단단해진다. 다만 응고시에 수지상정(樹枝狀晶)(Dendrite)이 발달하기 때문에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결점이 있다. 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금질(焼き入れ) 등의 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수지상정(樹枝狀晶)를 제거하는 기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고대의 청동제품 중에서 고석청동으로 제작된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경(銅鏡)을 들 수 있다. 일본열도에서는 이미 고석청동제품은 제작되지 않고 그 제작기법이 현재 전승되지 않는다.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여보면, 한반도의 유기제작에 고석청동이 이용되어 그 제작기법이 지금도 전하지만 드문 예에 속한다.

7) 주형(鑄型)에서 제품을 꺼낸 후에 저석(砥石) 등의 연마 등을 가하지 않은 상태. 엄밀히 말하면 전혀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지만 찌꺼기(鑄渣)를 제거하는 등의 최소한의 처리를 한 상태도 협의의 주기(鑄肌)로 간주한다.

8) 何堂坤, 1999, 『中国古代銅鏡的技術研究』, 紫禁城出版社

清水康二・三船清温尚・清水克朗,, 1998, 「鏡の熱處理實驗 一面反りについて(その1)-」, 『古代学研究』 第144号, 古代学研究会, pp.41~51.

二上古代学鑄金研究会, 2001, 「鏡の熱處理實驗 一面反りについて(その2)-」, 『古代学研究』 第154号, pp.1~17.

2. 예산 동서리유적 출토 원개형동기<그림 1-1, 사진 3·4>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의 해발고도 150m 정도의 산중에 있는 석관묘에서 출토되었다. 원개형동기 외에 다뉴세문경 2점, 다뉴세문경 1점, 다뉴소문경(多鈕素文鏡) 1점, 동심원문경(同心圓文鏡) 1점이 나왔고, 이 외 동검 9점, 검과형동기 3점, 나팔형동기(喇叭形銅器) 2점, 석촉, 관옥, 소옥, 흑도장경호, 집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직경 20.3cm이며, 凹面은 대부분 녹청(綠靑)으로 덮여있다. 이에 비해 凸面側은 녹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凸面의 색조는 칠흑색(漆黑色)을 나타내어 고석청동(高錫靑銅)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결손부분이 보수되었다. 이전에 출판된 전시도록¹⁰⁾을 참고하면,鈕(鈕)를 향하여 왼쪽 아랫부분의 외연(外緣)부터 심한 균열이 있지만, 동기의 중앙과 오른쪽 외연과의 중간지점에서 균열이 멎어있다. 그 사이, 다소 큰 파편이 결실되었지만 전체를 관찰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 이 외에 원형으로 이어지는 균열과 결실부분에서 이어지는 금이 보인다.

凹面은 기본적으로 괴정동유적 출토 원개형동기와 같으며, 거울면(鏡面)처럼 정성껏 연마되었다. 연단부(緣端部)도 마찬가지로 둥글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凸面은鈕(鈕)부근의 거침이 심하여,鈕(鈕)에 관하여서도 정성스럽게 연마된 흔적은 없다. 주조(鑄造) 후에 약간 조잡하게 연마된 것 같지만, 주기(鑄肌)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凸面의 연단부(緣端部)의 상황도 괴정동유적 출토품처럼 凹面側의 단부(端部)와 비교하여 확실히 연마(研磨)가 완성되지 않았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석청동기이면서 균열이 중도에 멎는 점은 열처리기술이 가해졌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부여 합송리유적 출토 원개형동기<그림 1-2, 사진 5·6>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에서 적석목관묘로 생각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원개형동기 외에도 다뉴세문경 1점, 동탁 2점, 동검 2점, 동과(銅戈) 1점, 이형동기(異形銅器) 1점, 철부(鐵斧) 2점, 철착(鐵鑿) 1점, 유리 관옥, 흑도장경호가 출토되었다.

직경 22.2cm이며, 凹面, 凸面에 얇은 녹청(綠靑)이 뿜어져 있다. 결실되어 있는 1/3이 보수·복원되었기 때문에 파단면(破断面)의 관찰은 불가능하지만 A, B에 비하여 주석

9) 全榮來, 1991, 『韓國靑銅器時代文化研究』, 新亞出版社, p.622.

10) 國立中央博物館·國立光州博物館, 1992, 『特別展 韓國의靑銅器文化』, 汎友社, p.31.

의 비율이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보수·복원 전의 사진¹¹⁾을 보면 결실된 1/3 외에, 4부분으로 깨져있다. 그렇지만 괴정동, 동서리 출토품처럼 균열이 중도에 멈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원개형동기를 근거로鈕(鈕)를 복원하였지만 확실히鈕(鈕)가 존재하였는지, 또한凸面側, 凹面側 중 어느 쪽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凹面側은 A, B와는 다르게, 마연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주조 당시의 상태로 확인된다. 가장자리의 평탄면(平坦面)에도 판자의 나무결 흔적의 가능성이 있는 조선(條線)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연마되지 않았다. 단부(端部)도 둥그스름함이 없다.凸面側도 같은 모양으로 위치마다 주기(鑄肌)의 거친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정성스럽게 마연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A, B는 곰보자국모양의 거친 표면으로, 약간 영성한 정도의 연마 등이 가해진 흔적이 관찰되는데, 합송리 출토품은 찌꺼기(鑄張り), 주물제작시 주입된 액체 상태의 금속이 형틀 이음새 등에서 새어나온 것) 등을 제거한 A, B보다도 가공이 가해지지 않은 주기(鑄肌)의 상태이다.

3점의 원개형동기의 조사를 통해 알아낸 중요한 관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괴정동유적, 동서리유적 출토 원개형동기의 凹面側은 정성껏 마연되어, 동경의 경면(鏡面)과 같은 상태이다(사진 7 참조).

② 합송리유적 출토 원개형동기의 凹面側은 마연되지 않고, 경면(鏡面)과 같은 상태가 아니다.

③ 원개형동기의凸面側은 정성스런 연마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괴정동, 동서리 출토품은 동경의 경면(鏡面)처럼 완성되지 않았다. 합송리 출토품은 조잡한 영성한 연마도 없었던 주기(鑄肌)이다. 다만 합송리 출토품의 찌꺼기는 제거되어 미완성품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Ⅲ. 고찰

위의 관찰결과를 놓고 볼 때,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① 원개형동기의 凹面側에 경면(鏡面)처럼 마연된 것이 있다. 따라서 원개형동기 용도의 하나는 영상을 비춰내거나, 혹은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② 이 점에서 보면 거울에 비추어, 원개형동기의 앞면은 凹面側, 뒷면은凸面側이라고 할 수 있다.

11) 国立中央博物館・国立光州博物館, 1992, 『特別展 韓国の 青銅器文化』, 汎友社, p.43.

③ 합송리출토품은 凹面側도 연마되지 않고 주기(鑄肌)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을 비춰낼 수 없고 빛의 반사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괴정동, 동서리출토품보다도 늦은 시기에 빛을 반사하는 기능이 상실된 단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묘(墓)에 부장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명기(明器)일 가능성이 있다.

원개형동기 중 합송리출토품은 다른 2개와는 다르게 빛을 반사하는 기능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울표면의 기능이 상실되었던 이유로서 생각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거울이 가졌던 기능을 잃었을 가능성, 혹은 부장용의 명기로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부장명기(副葬明器) 보다는 시간경과에 의한 기능상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고고자료에서 명기(明器)의 특징의 하나로서 소형화 등의 크기변화가 상당수 확인되기 때문이다. 합송리 출토품의 직경은 22.2cm로 복원되어, 괴정동, 동서리 출토품보다 오히려 조금 크다. 이 점에서 명기설(明器說)을 채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합송리 출토품에 거울의 표면이 만들어지지 않는 점에 의문이 든다. 연마를 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은 이 원개형동기가 경면(鏡面) 이외의 다른 중요한 기능을 가졌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견무(李建茂)는 원개형동기의 용도를 징처럼 때려서 음을 울리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¹²⁾ 이것은 흥미로운 착상으로, 뛰어난 의견이다. 원개형동기의 凹面 형상 자체가 凸面이 안쪽으로 늘어져, 단부(端部)가 앞으로 튀어나온 점을 이용하여 봉상(棒狀)의 기구로 때려서 음을 낼 때에 편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울에 음향기능(音響機能)이 부여된 구체적인 예로는 일본열도의 고분에서 출토된 鈴鏡을 들 수 있을 것이다<사진 8>¹³⁾. 일본의 鈴鏡은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거울에 방울을 부착한 것이지만, 음향효과와 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또 鈴鏡과 샤면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 고고자료로서는 인물 하나와(埴輪) 중 무녀의 허리에 달려있는 예가 있다.

괴정동, 동서리 출토품은 음향기능과 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합송리 출토품은 빛을 반사하는 기능이 없어지고 음향기능만이 남은 단계의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의 무속을 연구하는 秋葉隆에 의하면 거울이 음향기능을 겸비한 사례로서 거울끼리 때리거나, 방울과 함께 때려 소리를 내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¹⁴⁾ 또 최근 중국 대륙의 단뉴소문경(單鈕素文鏡)을 짐성하고, 고찰한 甲元真之에 의하면 중국 동북지방의

12) 李健茂, 1990, 「扶餘 合松里遺跡出土一括遺物」, 『考古學誌』 第2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pp.34~35.

13) 千賀久編, 1992, 『大和の古墳の鏡』, 奈良県立橿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 p.29.

14) 秋葉隆, 1950, 『朝鮮巫俗の現地研究』, 養徳社, pp.129~133.

어루춘 죽은 「동경(銅鏡)과 구슬(珠)」을 서로 맞부딪치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¹⁵⁾

다음으로 동시대의 청동기와 비교하고 지금까지의 가설을 검증해보자. 먼저 원개형동기의 앞뒷면에 관하여鈕(鈕)의 형상에서 추정할 수 있다. 청동기의 문양면(文樣面)에 있는鈕(鈕)와 문양이 없는 면에 있는鈕(鈕)는 일반적으로 완성품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팔주례(八珠例)에 보이는 뒷면의鈕(鈕)는 원개형동기처럼 조잡하게 만들었다. 문양이 있는 면과 문양이 없는 면의 양면에 걸쳐鈕(鈕)가 있는 대전 괴정동유적 출토 검파형동기(劍把形銅器)를 보면 문양이 없는 면의鈕(鈕)는 원개형동기처럼 조잡하게 제작되어 있다. 그에 비해 문양면의鈕(鈕)는 정성스럽게 제작되었다. 다른 청동기를 보아도 문양면의鈕(鈕)는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예외적으로 다뉴경(多鈕鏡)의 경배(鏡背), 즉 뒷면에는 정성껏 제작된鈕(鈕)가 붙어 있지만, 그것은 문양면에도 있기 때문에 원개형동기의鈕(鈕)와는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조잡한鈕(鈕)를 가진 원개형동기의凸面은 뒷면이라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傳 익산 출토 원형유문동기(圓形有文銅器)를 검토해 보자<사진 9>. 이것은 크기도 원개형동기와는 다르게 직경 12.0cm로 작지만凹面과凸面으로 형성된 점은 원개형동기와 공통된다. 또 결실되어 있지만鈕(鈕)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凹面に 주출(鑄出)된 문양이 태양을 상징한다는 의견도 있어¹⁶⁾ 빛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면, 확실히 원개형동기의凹面이 거울면(鏡面)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원형유문동기는 원개형동기가 가진 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문양으로 나타내고 음향기능만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팔주령(八珠鈴)과의 관계를 검토해보자. 팔주령으로 대곡리유적,¹⁷⁾ 傳 논산,¹⁸⁾ 傳 덕산 출토품<사진 10>¹⁹⁾이 알려진 것 외에, 傳 상주 출토품²⁰⁾은 실측도와 사진만이 남아있어 유물은 소재를 알 수 없다.凹面側에 빛을 상징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양이 있지만, 傳 논산 출토품은凸面側에도 같은 문양이 주출(鑄出)되고 있다. 모든鈕(鈕)의 위치는凸面 중심에 위치하여 이 점에서 원개형동기와는 다르다. 또 傳 논산

15) 甲元真之, 2006, 「東アジアの青銅器 - 東北アジアの単鈕素紋鏡を中心として -」, 『國學院大学21世紀COE 프로그램2005年度考古學調査研究報告・東アジアにおける新石器文化と日本Ⅲ』, 國學院大学21世紀COE 프로그램研究センター, p.303.

16) 李健茂, 1984, 「伝 益山出土 円形有文青銅器」, 『尹武炳博士 回甲紀年論叢』, 尹武炳博士 回甲紀年論叢刊行委員会, p.115.

17) 趙由典, 1984, 「全南和順青銅遺物一括出土遺跡」, 『尹武炳博士 回甲紀年論叢』, 通川文化社, pp.67~103.

18) 李健茂, 1992, 「韓國銅儀器의 研究 -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 『韓國考古學報』 第28輯, 韓國考古學會, pp.131~216.

19) 李健茂, 1992, 「韓國銅儀器의 研究 -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 『韓國考古學報』 第28輯, 韓國考古學會, pp.131~216.

20) 藤田亮策・梅原末治・小泉顯夫,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第二冊・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跡』, 朝鮮總督府.

출토품은 凸面側에 문양이 있기 때문에 원개형동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조잡하게 제작된 뉴(鈕)가 아니라, 정성껏 제작된 뉴(鈕)가 달려있다.

특히 傳 덕산 출토 팔주령의 요면문양(凹面文樣)은 원형유문동기의 凹面側 문양과 유사한 십자형(十字形)으로 빛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양면의 凹面形狀, 빛을 상징하는 문양, 뉴(鈕)의 존재 등을 볼 때, 원개형동기에서 원형유문동기를 거쳐 팔주령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어떠한가.

팔주령은 방울의 위치에 의해 음향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 점에서 보면 낡은 단계의 원개형동기가 가졌던 음향기능과 빛을 반사하는 기능 중 기본적으로 원형유문동기와 팔주령이 음향기능만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당하다. 빛을 반사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다뉴경(多鈕鏡)이 원개형동기와 동시에 사용되었던 점에서 볼 때, 다뉴경의 역할이 부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다루어 온 자료의 편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청동기군의 편년에 대해서는 연구자 사이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하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²¹⁾

- ① 괴정동유적, 동서리유적이 합송리유적보다 선행한다.
- ② 괴정동유적, 동서리유적이 팔주령의 출현보다 선행한다.
- ③ 팔주령의 출현과 합송리유적에 관련해서는 동시기 또는 합송리유적의 연대가 늦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볼 때, 괴정동유적, 동서리유적의 원개형동기로부터 합송리유적의 원개형동기, 傳 익산의 원형유문동기는 음향기능만을 이어받았다고 생각된다. 또 원형유문동기와의 관련에서 팔주령이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형유문동기의 평가, 팔주령의 출현시기와 합송리유적의 원개형동기의 선후관계 등은 어려운 문제지만, 괴정동, 동서리유적 출토의 원개형동기가 선행한다는 점에서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 李健茂, 『韓國銅儀器의 研究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第28輯, 韓國考古學會, pp.131~216.
三船温尚・後藤直, 2004, 「復元鑄造と出土遺物から考察する韓國八珠鈴の鈴造方法」, 『高岡短期大學紀要』第19卷, 國立高岡短期大學, pp.184~202.
李健茂, 1992, 「韓國 青銅器文化」, 『特別展 韓國 青銅器文化』, 國立中央博物館・國立光州博物館, pp.126~154.

IV. 맺음말

이제까지 서술해 온 것을 간단히 정리하고 나아가 향후 전망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대전 괴정동유적, 예산 동서리유적 및 부여 합송리유적출토 원개형동기를 관찰한 결과, 괴정동, 동서리 출토품에는 凹面側에 정성스런 연마가 가해진 거울면(鏡面)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다. 이 단계의 원개형동기에는 음향기능과 광반사기능을 겸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반해 합송리 출토품은 凹面側에 경면(鏡面)같은 연마된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른 두 출토품이 가진 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상실한 단계의 것으로 보인다. 凹面側의 경면(鏡面)에 있는 빛을 반사하는 기능과 청동기를 때려서 소리를 내는 음향기능 중 음향기능만 선택된 결과이다. 한반도와 시베리아 무속에는 거울을 때려 울려서 제사를 진행하는 예가 있다. 원개형동기의 두 가지 기능 중 광반사기능은 다뉴경의 역할이 증대된 것, 음향기능은 원형유문동기에서 팔주령으로 계승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렇게 생각하면 동경(銅鏡)의 본질적인 기능은 빛을 반사하는 기능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 이외에도 주체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거울에 관해서는 특히 그 경향이 강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고분시대(古墳時代) 중기 이후 경면(鏡面)과 방울이라는 광반사기능과 음향기능을 가진 鈴鏡이 제작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일본열도에서도 야요이시대(弥生時代) 이래 고분시대(古墳時代)에 이르기까지, 동경(銅鏡)과 음향기능이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파경(破鏡)에 대한 이제까지의 해석을 바꿀 필요는 없을까. 특히 이상한 점은 일본열도의 야요이시대(弥生時代)에서 동탁(銅鐸)이라는 금속음을 내는 제구(祭具)(듣는 銅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극단적인 대형화(보는 銅鐸)에 의해 음향기능보다도 시각효과를 중시한 제기(祭器)가 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²²⁾ 종교의례(宗教儀禮)의 장소에서 금속음이 중요한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으나, 상실된 금속악기의 대체품이 무엇이었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속악기(金屬樂器)의 음향은 샤먼이 신들린 상태가 되어 초신(招神)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된다. 겨우 동탁(銅鐸)이라는 악기가 있던 야요이시대(弥生時代)에 반해, 고분시대(古墳時代) 전기에는 음향기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속기로는 통형동기(筒形銅

22) 田中琢, 1970, 「「まつり」から「まつりごと」へ」, 『古代の日本 5 近畿』, 角川書店

器)가 있을 정도로, 금속음(金屬音)을 확실히 냈었다고 생각되는 고고자료는 없다.

어느쪽이든 일본열도의 원사시대(原史時代)에 있어서도 거울이 가진 본래의 기능 이외에 음향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번의 가설(假說)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청동기의 사용흔(使用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대의 동경(銅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닳은 것」으로만 생각된 사용흔(使用痕)과 찰흔(擦痕)이 어떻게 하여 형성된 것일지를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분묘(墳墓)에서 출토된 거울에 금이 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고고학자는 야요이시대, 고분시대를 통해 동탁 이외의 음향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속기를 한층 탐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조사 등에 있어서 도움을 준 다음의 관계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国立中央博物館, 国立扶餘博物館, 国立文化財研究所, 洪鎮根, 李柱憲, 安京淑, 金眩希(以上 国立中央博物館), 金鍾萬, 李炳鎬, 盧希淑(以上 国立扶餘博物館), 金容民, 李恩碩, 韓나래, 許世蓮(以上 国立文化財研究所), 金賢貞(忠南大学校), 宮里修(早稲田大学), 庄田慎矢(東京大学), 宮原晋一, 熊博美(以上 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敬称略)

이 논문은 平成 18년도 日本學術振興科学研究費補助金(「鏡嫂の調査による東アジアの銅鏡製作技術と流通に関する研究」 基盤研究B, 研究代表者: 口水康二, 課題番号 18320133)에 의한 研究成果의 일부이다.

참고문헌

- (1) 瀋陽故宮博物館·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75, 「瀋陽鄭家窪子的兩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學報』1期, 科學出版社
- (2) 吳江原, 2004, 「圓蓋形銅器」, 『韓國考古學專門事典 青銅器時代篇』, 國立文化財研究所
甲元真之, 1990, 「多鈕鏡の再檢討」, 『古文化談叢』第22集, 九州古代文化研究会
- (3) 李殷昌, 1979, 「大田市 槐亭洞出土一括遺物調査略報」, 『考古美術 第一號~第百號合輯』
下券, 韓國美術史究會
李殷昌, 「大田市 槐亭洞青銅器文化의 研究 -石器·黑陶·青銅器·裝身具의 結合文化를 中心으로-」, 『垂細亞研究』第11卷2券, 高麗大學校 垂細亞問題研究所
- (4) 池健吉, 1978, 「禮山 東西里石棺墓出土青銅一括遺物」, 『百濟研究』第9輯
- (5) 李健茂, 1990, 「扶餘 合松里遺跡出土一括遺物」, 『考古學誌』第2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6) 何堂坤, 1999, 『中国古代銅鏡的技術研究』, 紫禁城出版社
清水康二·三船温尚·清水克朗, 1998, 「鏡の熱處理實驗 -面反りについて(その1)-」, 『古代學研究』第144號, 古代學研究會
二上古代鑄金研究會, 2001, 「鏡の熱處理實驗 -面反りについて(その2)-」, 『古代學研究』第154號
- (7) 全榮來, 1991, 『韓國青銅器時代文化研究』, 新亞出版社
- (8) 國立中央博物館·國立光州博物館, 1992, 『特別展·韓國의 青銅器文化』, 汎友社
- (9) 李健茂, 1990, 「扶餘 合松里遺跡出土一括遺物」, 『考古學誌』第2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10) 千賀久編, 1992, 『大和の古墳の鏡』,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
- (11) 秋葉隆, 1950, 『朝鮮巫俗の現地研究』, 養德社
- (12) 甲元真之, 2006, 「東アジアの青銅器 -東北アジアの單鈕素紋鏡を中心として-」, 『國學院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2005年度考古蹟調査研究報告 東アジアにおける新石器文化と日本Ⅲ』, 國學院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研究センター
- (13) 李健茂, 1984, 「伝 益山出土 円形有文青銅器」, 『尹武炳博士 回甲紀年論叢』, 尹武炳博士 回甲紀年論叢刊行委員會
- (14) 趙由典, 1984, 「全南和順青銅遺物一括出土遺跡」, 『尹武炳博士 回甲紀年論叢』, 尹武炳博士 回甲紀年論叢刊行委員會

- (15) 李健茂, 1992, 「韓国青銅儀器의研究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第28輯, 韓國考古學會
- (16) 藤田亮策 梅原末治 小泉顯夫,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第二冊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跡』, 朝鮮總督府
- (17) 三船温尚 後藤直, 2004, 「復元鑄造と出土遺物から考察する韓国八珠鈴の鑄造方法」, 『高岡短期大學紀要』第19卷, 國立高岡短期大學
 李健茂, 1992, 「韓国 青銅器文化」, 『特別展 韓国 青銅器文化』, 國立中央博物館 國立光州博物館
- (18) 田中琢, 1970, 「「まつり」から「まつりごと」へ」, 『古代の日本 5 近畿』, 角川書店

Abstract

A Study of Disk-Shaped Bronze Implements

Yasuji Shimizu

Several explanations exist about the usage of disk-shaped bronze implements in the ancient society. Some argue that they were used as mirrors, others suggest percussion instruments, and still others bronze ornaments. Differences between disk-shaped bronze implements and mirrors with multiple knobs are that the former have no visible design, only one handle, and a sharp curvature unlike the latter with smooth curvature. The question is whether disk-shaped bronze implements excavated from Korean peninsula have any light reflecting function. To answer this question, I carefully studied the concave surfaces of disk-shaped bronze implements excavated from Goejeong-dong, Tongso-ri and Hapsong-ri sit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concave sides of the disk-shaped bronze implements excavated from Goejeong-dong and Tongso-ri sites were highly polished, and they were as reflective as bronze mirrors.

(2) The concave side of the disk-shaped bronze implement from Hapsong-ri site was unpolished, and it was different from bronze mirrors.

(3) As for the convex sides of the disk-shaped bronze implements, they did not appear to have been polished with care.

Considering the above findings, the disk-shaped bronze implements excavated from Goejeong-dong and Tongso-ri sites belong to the stage where they could act as both mirrors and instruments. On the contrary, the disk-

shaped bronze implement from Hapsong-ri site can belong to the stage where it lost the function of being a mirror as the result of maintaining only its function as an instrument.

Even though disk-shaped implements had two functions,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light reflecting function expanded the role of a mirror with multiple knobs and the sound function helped the engraved round bronze implement to be converted into an eight-armed bronze rattle.

Since it has been reported that shamans used bronze mirrors as percussion instruments in their performances in Korean peninsula and Siberia, I propose a reconsideration of the usage of mirrors in the ancient East Asia. Although the essential function of a mirror is to reflect light, other possible usages involving important functions need to be further investigated.

Keywords: Disk-Shaped Bronze Implement, Mirror with Multiple Knobs, Engraved Round Bronze Implement, Eight-Armed Bronze Rattle, Shamanism, Mirror.

I.はじめに

物を見れば、その裏側に隠されたものを覗いてみたくするのが人間の心情である。私も国立扶餘博物館の青銅器に関する展示を見て、目に見える表側だけではなく裏側の様子を知りたくなった。ことさら気になったのは、数ある青銅器の中でも円蓋形銅器という青銅器である。博物館では多鈕鏡の展示に準じてか、鈕のある側が展示され、その反対側を観察することはできない。

鏡の研究をしていると、円蓋形銅器のような円形の物体を見ると鏡に関係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くなる。事実 円蓋形銅器は、鄭家窪子6512号墓(1)出土・鏡形飾等との関連から、「鏡形飾」「鏡形器」「単鈕無文鏡」などとされることもある(2)。ただし、同時代の多鈕鏡と異なる点は、円蓋形銅器には文様が見られない点、鈕が一つである点、多鈕鏡のように緩やかな凹面ではなく、曲率が大きい凹面という点である。はたして韓半島から出土する円蓋形銅器には光を反射する機能があるのだろうか。このことは円蓋形銅器の凹面を観察すれば、簡単に判断できるだろうと思い、国立中央博物館の槐亭洞遺跡出土円蓋形銅器(3)および国立扶餘博物館の東西里遺跡(4)、合松里遺跡出土円蓋形銅器(5)の観察をしたいと考えた。

この論文では、資料調査の結果から得た知見と関連する青銅器を参照して、韓半島の青銅器文化における円蓋形銅器の性格と使用方法について推測し、問題提議をしたい。

II. 資料調査

1. 大田 槐亭洞遺跡出土円蓋形銅器(図版1・2)

大田広域市槐亭洞の低い丘陵にあった石槨墓から出土した遺物群である。円蓋形銅器の他多鈕粗文鏡 2点、銅剣 1点、防牌形銅器 2点、銅鐸 2点、剣把形銅器 3点、曲玉、管玉、小玉、石鏃のほか、黒陶長頸壺、粘土帯土器が出土している。

直径 206cm。凹面(鈕の無い面)、凸面(鈕の有る面、以下同様)ともに大半を緑青で覆わ

れている。わずかに錆の及んでいない部分の色調からすると、錫比率が高い高錫青銅(6)の可能性が高い。鈕の有る方向を上方(以下同様)と考えると、右下方の外縁から鈕のやや右下まで大きな亀裂が入っている。

緑青の付着しない部分の観察によれば、凹面側は細かい研磨が行われており、鏡面同様に仕上げられている。また縁の平坦面も同様に仕上げられている。凹面側縁端部の角も丸く仕上げられている。これに反して凸面は、あばたのように粗い器面が残っており、鑄肌(7)に近い状況であることがわかる。また凸面側の縁端部も凹面側端部とは異なり、丸く仕上げられていない。

詳細な成分分析を経なければ正確なことはわからないが、仮に高錫青銅であるとすれば、大きな亀裂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亀裂が途中で止まっているのは、青銅器製作において熱処理技術が用いられ、高錫青銅器を柔らかくすることで、割れにくく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8)。東西里遺跡出土円蓋形銅器とは同範であるとされている(9)。

2. 礼山 東西里遺跡出土円蓋形銅器(図1-1, 図版3・4)

畿山郡大興面東西里の標高150mほどの山中にあった石棺墓から出土した。円蓋形銅器のほかには、多鈕粗文鏡2点、多鈕細文鏡1点、多鈕素文鏡1点、同心円文鏡1点が出土している。そのほか銅剣9点、剣把形銅器3点、喇叭形銅器2点、石鏃、管玉、小玉、黒陶長頸壺、粘土帯土器が出土した。

直径 20.3cm。凹面は緑青により大部分を覆われている。それに対して凸面側は錆がほとんど見られない。凸面の色調は漆黒色を呈しており、高錫青銅であると考えられる。現在は欠損部分が補修されている。以前に出版されている展示図録(10)を参考にすれば、鈕へ向かって左下方の外縁から大きな亀裂が入っているが、銅器の中央から右外縁との中間部分で亀裂が止まっている。その間、やや大きめの破片が失われているが、全体を観察するには問題がない。大きな亀裂以外に円形に続く亀裂や欠失部分から続くひびが見られる。

凹面は基本的に槐亭洞遺跡出土円蓋形銅器と同様で、鏡面のように研磨され丁寧に仕上げられている。縁端部も同様に丸くなっている。これに対して凸面は鈕付近の荒れがひどく、鈕に関しても丁寧な仕上げ研磨が行われた形跡はない。鑄造後に若干の粗研ぎは行われたと考えられるが、鑄肌に近い状況と考えられる。凸面の縁端部の状況も槐亭洞遺跡出土品と同様で、凹面側の端部に比べて明らかに仕上げの研磨がなされていない状況が確認できる。

高錫青銅器でありながら亀裂が途中で止まる点は、熱処理技術が行われたと考える根拠

となる.

3. 扶餘 合松里遺跡出土円蓋形銅器(図1-2, 図版5・6)

扶餘郡窺岩面合松里にあった積石木棺墓と考えられる遺構から出土している. 円蓋形銅器のほかには, 多鈕細文鏡1点, 銅鐸2点, 銅劍2点, 銅戈1点, 異形銅器1点, 鉄斧2点, 鉄鑿1点, ガラス管玉, 黒陶長頸壺が出土した.

直径22.2cm. 凹面, 凸面とも薄く緑青が吹いている. 欠失している1/3も補修・復元されているため破断面を観察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 前二者に比べて錫比率が少ない印象を受ける. 補修・復元前の写真(11)を見ると, 欠失した1/3のほか4つに割れている状況が確認できる. しかしながら, 槐亭洞, 東西里出土品のように亀裂が途中で止まる状況は認められない. 他の円蓋形銅器を元に鈕が復元されているが, 正確には鈕が存在したかどうか, あるいは凸面側, 凹面側のいずれにあったかもわからない.

凹面側は前二者とは異なり, 全く研磨の痕跡が見られず鑄放しの状態が見て取れる. 端の平坦面にも挽き板の木目痕跡の可能性のある条線が残っており, 研磨がなされていない. 端部も丸みがない. 凸面側も同様で, 場所によって鑄肌の荒れ方に差はあるが, 丁寧な研磨が行われた痕跡を見いだすことはできない. 前二者はあばた状に荒れた肌を見せるものの, 若干の粗研ぎ等が行われた形跡が観察できるのに対して, 鑄張りなどの除去が行われたものの基本的に前二者よりも加工が行われておらず, 鑄肌の状態である.

要約すると3点の円蓋形銅器を観察してわかった重要な事柄は以下に述べる通りである.

- ① 槐亭洞遺跡, 東西里遺跡出土円蓋形銅器の凹面側は丁寧に研磨されており, 銅鏡の鏡面と同様の状況である(写真1).
- ② 合松里遺跡出土円蓋形銅器の凹面側は研磨がなされておらず, 鏡面のような状況になっていない.
- ③ 円蓋形銅器の凸面側は丁寧な研磨が見られない. 槐亭洞, 東西里出土品は, 銅鏡の鏡面のように仕上げられていない. 合松里出土品は粗研ぎも行われず, 鑄肌である. ただし, 合松里出土品の鑄張りは除去されており未製品とは考えにくい.

Ⅲ. 考察

上記の観察からすると、以下の推測ができる。

- ① 円蓋形銅器の凹面側に鏡面同様の研磨が施されるものがある。したがって、円蓋形銅器の用途の一つは映像を映し出す、あるいは光を反射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
- ② このことからすれば、鏡に準じて円蓋形銅器の「表」は凹面側であり、「裏」は凸面側であると言える。
- ③ 合松里出土品は凹面側も研磨がなされておらず、鑄肌に近い状況であるため映像を映し出すことはできず、光の反射も充分ではなかったであろう。したがって、槐亭洞、東西里出土品よりも新しく、光反射機能が失われた段階に製作されたものと考えるか、墓に副葬する目的のみによって製作された明器である可能性が考えられる。

円蓋形銅器のうち合松里出土品は他の二者とは異なり、光反射機能は無かったと考えられる。鏡面効果を失った理由として考えられるのは、時間経過の間に鏡本来が持つ機能を失ったか、あるいは副葬用の明器として製作されたも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しかしながら副葬明器と考えるよりは、時間経過による機能喪失と考えたい。なぜならば考古資料において、明器の特徴の一つとして小型化などの大きさの変化が見られることが多いためである。合松里出土品の直径は22.2cmに復元でき、槐亭洞、東西里出土品と大きさとしては変わることがなく、むしろ少し大きい。この点で明器説を採用すべきではないと考える。

このように考えると、合松里出土品に鏡面が作られないことに大きな疑問をいだく。研磨をすることで簡単に鏡面という本来の機能を維持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重要な機能が失われるのは、この円蓋形銅器の機能に鏡面以外の重要な機能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推測することができる。李建茂は、円蓋形銅器の用途を磬のように打ち鳴らし、音をだすものであると推測している(12)。これは興味深い着想であり、卓見である。円蓋形銅器の凹面形状自体が凸面を裏側にして垂下した場合、端部が前方に突き出る点を利用して、棒状の器具により打ち鳴らすときに便利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鏡に音響機能が付与される例を具体的にあげれば、日本列島の古墳から出土する鈴鏡があげられるだろう(写真2)(13)。日本の鈴鏡は世界的にも例を見ない鏡に鈴を付けたものだが、音響効果と光反射機能を同時に発揮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鈴鏡とシャーマニズムとの関係を具体的に伺うことのできる考古資料としては、人物埴輪のうち巫女の腰に付

けられている例がある.

槐亭洞, 東西里出土品は音響機能と光反射機能を同時に発揮する器具として使用され, 合松里出土品は光反射機能が無くなり, 音響機能のみとなった段階のものと考えてはどうだろうか.

韓半島の巫俗を研究した秋葉隆によれば, 鏡が音響機能を併せ持つ事例として, 鏡と鏡を打ち鳴らしたり, 鈴とともに打ち鳴らすことがあることを紹介している(14). また, 最近, 中国大陸の単鈕素文鏡を集成し, 考察を加えた甲元真之によれば, 中国東北地方のオロチョン族には「銅鏡と珠」を相互に打ち合う習俗があるとのことである(15).

次に同時代の青銅器と比較し, 今までの仮説を検証する. まず, 円蓋形銅器の「表」と「裏」に関しては, 鈕の形状から追認できる. 青銅器の文様面にある状と文様のない面にある鈕とでは, 一般に出来上がりにおいて大きな差がある. 例えば八珠例に見られる裏面の鈕は円蓋形銅器と同様に粗末な作りである. 文様のある面と文様のない面の両面にまたがって鈕がつく大田槐亭洞遺跡出土剣把形銅器を見ると, 文様のない面の鈕は円蓋形銅器と同様に粗末な作りとなっているものがある. それに対して文様面の鈕は丁寧に作られている. 他の青銅器を見ても, 文様面の鈕は丁寧に作られているとしてよい.

例外としては, 多鈕鏡の鏡背, つまり「裏」面には丁寧に作りの鈕がつくが, これは文様面でもあるため円蓋形銅器の鈕とは単純に比較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したがって, 粗末な鈕を持つ円蓋形銅器の凸面は「裏」面であるという根拠となる.

次に伝益山出土の円形有文銅器を検討する(写真3). これは大きさも円蓋形銅器とは異なり, 直径12.0cmと小さいが, 凹面と凸面で形成される点は円蓋形銅器と共通する. また, 欠失してはいるものの, 鈕があったことがわかっている. また, 凹面に鑄出された文様を太陽を象徴するものだとする意見もあり(16), 光を象徴するものだとすれば, まさに円蓋形銅器の凹面が鏡面となっていることと同じ意味を持つことになる. 円形有文銅器は円蓋形銅器が持っていた光反射機能を文様で象徴し, 音響機能のみを受け継いだものと考えたい.

次に八珠鈴との関係を検討することにしよう. 八珠鈴には大谷里遺跡(17), 伝論山(18), 伝徳山出土品(写真4)(19)が知られるほか, 伝尚州出土品(20)は実測図と写真のみが残され, 現物は所在不明である. 凹面側に光をかたどったと考えられる文様がつくが, 論山出土品は凸面側にも同じ文様を鑄出している. いずれも鈕の位置は凸面の中心に位置しており, この点において円蓋形銅器とは異なっている. また, 伝論山出土品は凸面側に文様があるため, 円蓋形銅器に見られるような粗雑な作りの鈕ではなく, 丁寧に作りの鈕が付けられている.

中でも伝徳山出土八珠鈴の凹面文様は、円形有文銅器の凹面側文様に類似する十字形で、光を表現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文様面の凹面形状、光を象徴する文様、鈕の存在などからすれば、円蓋形銅器から円形有文銅器を通じて、八珠鈴に至ったと考えてはどうか。

八珠鈴では鈴の設置により音響機能がさらに強化されることになった。このことからすれば古い段階の円蓋形銅器が持っていた音響機能と光反射機能のうち、基本的に円形有文銅器と八珠鈴が音響機能のみを継承したものと考えてよい。光反射機能については多鈕鏡が円蓋形銅器と同時に使用されていたことからして、多鈕鏡の役割が増大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

さて、最後に今まで扱ってきた資料の年代的な位置づけを見ることにする。青銅器群の編年については、研究者の間で細部について確定していないが、以下の事柄については異論がないと考えて良い(21)。

- ① 槐亭洞遺跡、東西里遺跡が合松里遺跡より先行する。
- ② 槐亭洞遺跡、東西里遺跡が八珠鈴の出現より先行する。
- ③ 八珠鈴の出現と合松里遺跡に関しては、同時期か合松里遺跡の年代が遅いと考えられており、現在のところ確定していない。

今までの考察では槐亭洞遺跡、東西里遺跡の円蓋形銅器から合松里遺跡の円蓋形銅器、伝益山の円形有文銅器が音響機能のみを受け継いだと考えた。また円形有文銅器との関連で八珠鈴が新たに作られたと考えたので、円形有文銅器の位置づけ、八珠鈴の出現時期と合松里遺跡の円蓋形銅器の前後関係などは難しい問題ではあるが、槐亭洞、東西里遺跡出土の円蓋形銅器が先行するという点で矛盾無く理解できると考えている。

IV. まとめ

最後にこれまで述べてきたことを簡単にまとめ、その上で今後の展望について述べたいと思う。

まず、大田槐亭洞遺跡、礼山東西里遺跡および扶餘合松里遺跡出土の円蓋形銅器を観察した結果、槐亭洞、東西里出土品には凹面側に丁寧な研磨が施された鏡面が存在することがわかった。この段階の円蓋形銅器には、音響機能と光反射機能が備えられていたものと想定した。それに反して合松里出土品に関しては、凹面側に鏡面同様の研磨が見られず、

前二者が持っていた光反射機能を喪失した段階のものであろう。凹面側の鏡面にある光反射機能と青銅器を打ち鳴らして音を出す音響機能のうち、音響機能のみ選択された結果である。韓半島やシベリアの巫俗では、鏡を打ち鳴らして祭事を行う例がある。円蓋形銅器の二つの機能のうち、光反射機能は多鈕鏡の役割が増大し、音響機能については円形有文銅器から八珠鈴に引き継がれたと考えられる。

さて、このように考えると銅鏡の本質的な機能は光反射機能には違いないが、それ以外にも主体的な機能を保有していた可能性をもっと考慮する必要がある。日本列島の出土鏡に関しては特にその傾向が強いが、様々な情報を違った観点で考えてみることも重要であろう。特に古墳時代中期以後、鏡面と鈴という光反射機能と音響機能を有する鈴鏡が作られたことも考え合わせると、日本列島においても弥生時代以来、古墳時代を通じて銅鏡と音響機能に全く関係が無かったと考えるべきではないと思う。今のところ直接的な証拠は無いが、破鏡についての今までの解釈を変える必要はないであろうか。特に不思議に思うのは、日本列島の弥生時代において、銅鐸という金属音を鳴り響かせる祭具(聞く銅鐸)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それが極端に大型化(見る銅鐸)することによって音響機能よりも視覚効果を重視した祭器となったと理解されている(22)。宗教儀礼の場から金属音が重要な位置を失ったことになるが、失われた金属楽器の代替品が何であったのかを十分に考えて見る必要があるように思う。

金属楽器の音響はシャーマンがトランス状態に陥って招神するための重要な要素であったと考える。かろうじて銅鐸という楽器がある弥生時代に反して、古墳時代前期には、音響機能が認められている金属器には筒形銅器があるくらいで、金属音を明確に鳴り響かせていたと考えられている考古資料はない。

いずれにしろ、日本列島の原史時代においても、鏡が持つ本来の機能以外に音響機能を有していたという今回提示した仮説を検証するには、青銅器の使用痕の研究が重要と考えられる。古代の銅鏡で言えば、今まで「手ずれ」とのみ考えられていた使用痕や擦痕が、どのようにして作られたのかを詳細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し、その他にも、墳墓から出土する鏡に割れているものがあることなどにも違った観点から注意を向ける必要がある。日本の考古学者は弥生時代、古墳時代を通じて、銅鐸以外の音響機能を有していた金属器をさらに探す必要があるのではなかろうか。

最後になりましたが、資料調査等にあって下記の関係機関等のお世話になりました。記して感謝申し上げます。

国立中央博物館、国立扶餘博物館、国立文化財研究所、洪鎮根、李柱憲、安京淑、金眩希(以上、国立中央博物館)、金鍾萬、李炳鎬、盧希淑(以上、国立扶餘博物館)、金容民、

李恩碩, 韓ナレ, 許世蓮(以上, 国立文化財研究所), 金賢貞(忠南大学校), 宮里修(早稲田大学), 庄田慎矢(東京大学)宮原晋一, 熊博美(以上, 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敬称略)

この論文は, 平成18年度日本学術振興会科学研究費補助金(「鏡嫂の調査による東アジアの銅鏡製作技術と流通に関する研究」基盤研究B, 研究代表者: 清水康二, 課題番号18320133)による研究成果の一部である。

〈註〉

- (1) 瀋陽故宮博物館・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瀋陽鄭家窪子の兩座青銅時代墓葬」『考古学報』1期 科学出版社, 1975, p.141~156
- (2) 吳江原「円蓋形銅器」『韓国考古学専門事典 青銅器時代篇』国立文化財研究所, 2004, p.434~435
甲元真之は下記論文で槐亭洞出土円蓋形銅器を十二台營子出土多鈕鏡とともに「大型鏡」とする。
甲元真之「多鈕鏡の再検討」『古文化談叢』第22集 九州古代文化研究会, 1990, p.42
- (3) 李殷昌「大田市 槐亭洞出土一括遺物調査略報」『考古美術 第一号~第百号合輯』下券韓国美術史学会, 1979, p.330~333
李殷昌「大田市 槐亭洞青銅器文化의 研究 - 石器・黒陶・青銅器・装身具의 結合文化를 中心으로 -」『亜細亜研究』第11巻2巻 高麗大学校 亜細亜問題研究所, p.75~95
- (4) 池健吉「礼山 東西里石棺墓出土青銅一括遺物」『百濟研究』第9輯, 1978, p.151~181
- (5) 李健茂「扶餘 合松里遺跡出土一括遺物」『考古学誌』第2輯 韓国考古美術研究所, 1990, p.23~67
- (6) 高錫青銅とはおよそ錫比率が全体の20%を超える青銅である。錫の量が多いため、色味は白色に近くなり、硬くなる。ただし、凝固時に樹枝状晶(デンドライト)が発達するため、ガラスのように脆くなる欠点がある。この欠点を補うために焼き入れなどの熱処理技術を用いて樹枝状晶を消す技法が用いられることがある。古代の青銅製品の中で高錫青銅として製作される代表的なものとしては、銅鏡があげられる。日本列島においては、すでに高錫青銅製品は製作されておらず、その製作技法はもはや伝承されていない。東アジア全般に目を広げれば、韓半島のユギ製作に高錫青銅が用いられ、その製作技法を今に伝える希有な例となっている。
- (7) 铸型から製品を取り出した後、砥石などの研磨などを行わない状態。厳密には全く加工が行われない状態を言うが、铸張りを取り除くなどの最低限の処理を行った状態のものも狭義の铸肌とされる。

- (8)何堂坤『中国古代銅鏡的技術研究』紫禁城出版社, 1999
 清水康二・三船温尚・清水克朗「鏡の熱処理実験 一面反りについて(その1)」
 『古代学研究』第144号 古代学研究会, 1998, p.41~51
 二上古代鑄金研究会「鏡の熱処理実験 一面反りについて(その2)」『古代学研究』
 第154号, 2001, p.1~17
- (9)全栄来『韓国青銅器時代文化研究』新亜出版社, 1991, p.622
- (10)国立中央博物館・国立光州博物館『特別展 韓国の 青銅器文化』汎友社, 1992, p.31
- (11)国立中央博物館・国立光州博物館『特別展 韓国の 青銅器文化』汎友社, 1992, p.43
- (12)李健茂「扶餘 合松里遺跡出土一括遺物」『考古学誌』第2輯 韓国考古美術研究所,
 1990, p.34~35
- (13)千賀久編『大和の古墳の鏡』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附属博物館, 1992, p.29
- (14)秋葉隆『朝鮮巫俗の現地研究』養徳社, 1950, p.129~133
- (15)甲元真之「東アジアの青銅器 ー東北アジアの単鈕素紋鏡を中心としてー」監修 小
 林達雄 他『國學院大学21世紀COEプログラム2005年度考古学調査研究報告 東ア
 ジアにおける新石器文化と日本Ⅲ』國學院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研究センタ,
 2006, p.303
- (16)李健茂「伝 益山出土 円形有文青銅器」『尹武炳博士 回甲紀年論叢』尹武炳博士 回
 甲紀年論叢刊行委員会, 1984, p.115
- (17)趙由典「全南和順青銅遺物一括出土遺跡」『尹武炳博士 回甲紀年論叢』通川文化社,
 1984, p.67~103
- (18)李健茂「韓国青銅儀器의 研究 ー異形銅器를 中心으로ー」『韓国考古学報』第28輯
 韓国考古学会, 1992, p.131~216
- (19)李健茂「韓国青銅儀器의 研究 ー異形銅器를 中心으로ー」『韓国考古学報』第28輯
 韓国考古学会, 1992, p.131~216
- (20)藤田亮策・梅原末治・小泉顕夫『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第二冊 南朝鮮に於け
 る漢代の遺跡』朝鮮総督府
- (21)李健茂「韓国青銅儀器의 研究 ー異形銅器를 中心으로ー」『韓国考古学報』第28輯
 韓国考古学会, p.131~216
 三船温尚・後藤直 2004「復元鑄造と出土遺物から考察する韓国八珠鈴の鑄造方法」
 『高岡短期大学紀要』第19巻, 国立高岡短期大学, 1992, p.184~202
 李健茂「韓国の 青銅器文化」国立中央博物館・国立光州博物館『特別展 韓国の 青
 銅器文化』汎友社, 1992, p.126~154

(22)田中琢 「「まつり」から「まつりごと」へ」 坪井清足・岸俊男編『古代の日本 5 近畿』
角川書店, 1970



사진 1. 대전 괴정동유적 출토 원개형동기(凸面), 직경 20.6cm
(写真 1. 大田 槐亭洞遺跡 出土 円蓋形銅器(凸面), 直径 20.6cm)



사진 2. 대전 괴정동유적 출토 원개형동기(凹面)
(写真 2. 大田 槐亭洞遺跡 出土 円蓋形銅器(凹面))



사진 3. 예산 동서리유적 출토 원개형동기(凸面), 직경 20.3cm
(写真 3. 礼山 東西里遺跡 出土 円蓋形銅器(凸面), 直径 2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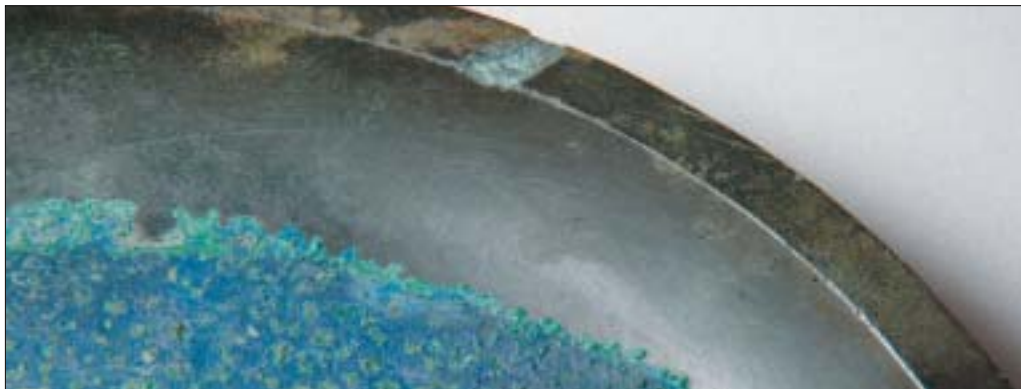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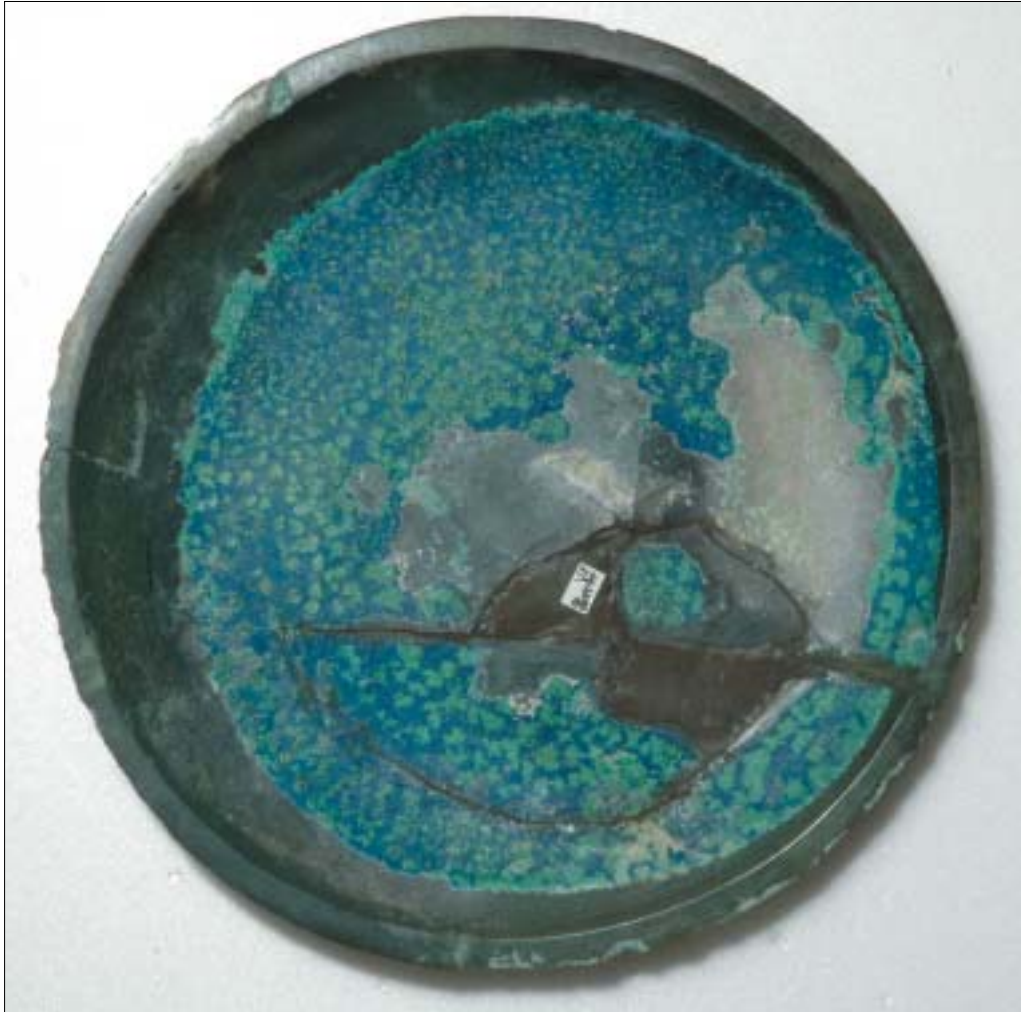


사진 4. 예산 동서리유적 출토 원개형동기(凹面)
(写真 4. 礼山 東西里遺跡 出土 円蓋形銅器(凹面))



사진 5. 부여 합송리유적 출토 원개형동기(凸面), 직경 22.2cm
(写真 5. 扶餘 合松里遺跡 出土 円蓋形銅器(凸面), 直径 2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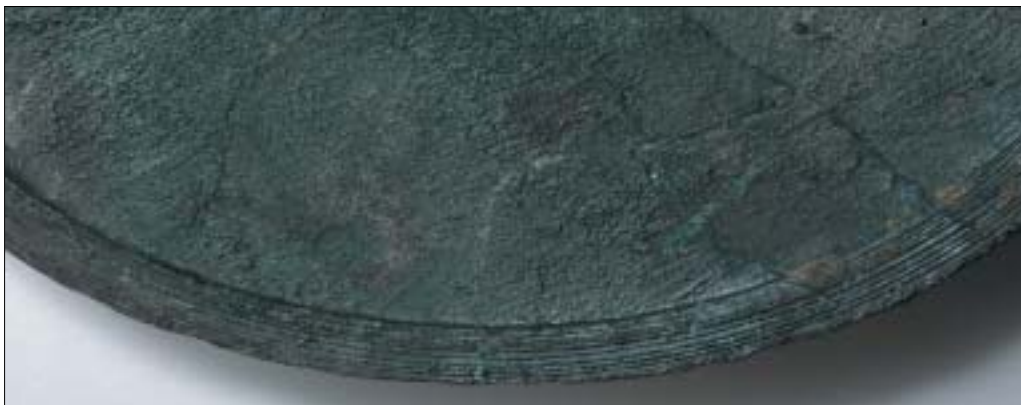


사진 6. 부여 합송리유적 출토 원개형동기(凹面)
(写真 6. 扶餘 合松里遺跡 出土 円蓋形銅器(凹面))



사진 7. 예산 동서리유적 출토 다뉴소문경, 직경 8.1cm
 (写真 7. 礼山 東西里遺跡 出土 單鈕素文鏡, 直径 8.1cm)



사진 8. 일본 나라현 新尺115고분 출토, 鈴鏡 직경 8.7cm (참고문헌 (13)에서 전재)
 (写真 8. 日本 奈良県 新尺115古墳 出土, 鈴鏡 直径 8.7cm)



사진 9. 전(傳) 익산 출토 원형유문동기(圓形有文銅器), 직경 12.0cm (참고문헌 (10)에서 전재)
(写真 9. 伝 益山 出土(圓形有文銅器), 直径 12.0cm)



사진 10. 전(傳) 덕산 출토 팔주령, 직경 12.0cm (참고문헌 (10)에서 전재)
(写真 10. 伝 德山 八珠鈴, 直径 1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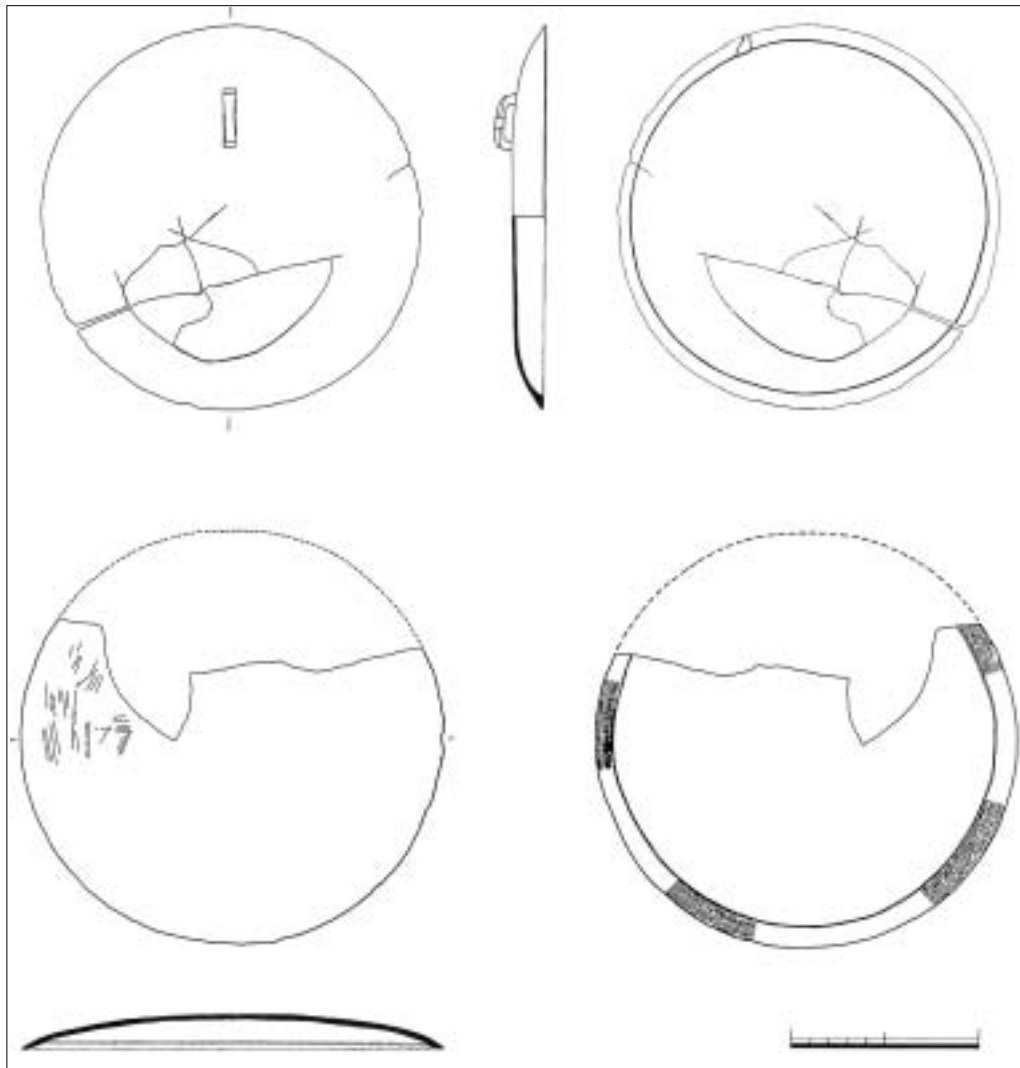


그림 1. 원개형동기 실측도 (圖 1. 円蓋形銅器 實側圖)
 (1. 예산 동서리유적 2. 부여 합송리유적, 참고문헌 (4), (5)에서 전재, 일부수정)